

구정질문 서면질문서

질문의원

김병진 의원

1. 지역축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허준축제가 세계적인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는 축제의 내실화 측면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자체 평가 결과에서 그동안 축제를 개최해오면서 다양한 구성과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품격을 높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는 아직도 많이 미흡한 실정이며, 아울러 일부 자치단체의 자연환경 등을 이용한 축제와는 달리 인물을 기리는 축제는 축제의 내용과 구성이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 14회 축제의 경우는 직·간접 비용이 약 23억에 이르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국가적인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기념사업을 우리구가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허준축제가 우리 강서구민의 축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축제에 대한 계획과 실행의 괴리는 안타까움마저 듭니다. 시대변화에 맞게 작지만 알찬, 즉 내실 있는 지역 잔치가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더 이상 최고 지향주의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지역주민 스스로 만들어가고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축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듯 합니다. 58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도시로 성장한 우리 강서구임에도 아직 구민운동장 하나 없는 현실에서 전 구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구 대표 축제라 하더라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축제 역시 어느 한 장소나 시기때에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장소와 시기를 해마다 달리하거나 아니면 격년제로 시행하는 일명 지역축제 총량제를 도입하여 전체 테마내에서 유사·중복된 축제를 조절하면서 구 전체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의 입장과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소서비스 대행업체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2012년 9월자 신문기사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5~7월 지방자치청소서비스 실태에 대해 기획감찰을 벌인 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청소노동자 임금 착취, 관리감독 소홀 등 구조적이면서도 방만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76건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를 내렸다. 실제로 일부 자치단체는 24년 동안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맡기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계약서를 부추기는 등 솔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위 기사 내용 중 일부 자치단체가 24년간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강서구의 경우에는 무려 35년간 어느 대행업체가 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울 따름입니다. 35년간의 특혜인지, 특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문제였는지, 담당자들의 항변 사이에 어떤 그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기회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러한 통상의 업무처리는 관례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악습이며, 공직자로서의 자기의무를 자기의 권리로 착각하는 부정부패의 첫 단초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각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진 기사내용은 “정부는 복마전으로 통하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업무 특성에 맞는 적격 심사 기준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재 시·군·구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자에 대한 평가도 광역시·도가 평가할 수 있도록 바꿀 방침이라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본 후 자치단체들의 청소서비스 업무에 대한 일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정부 역시 해당 업무를 방기했는지 아니면 자치단체들이 개선표준안을 무시한 것인지 여전한 관례라는 힘의 위대함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업체 선정시 이들 업체의 차량구입, 장비 구입, 인력 충원 등 특성을 고려해 계약을 어느 정도 연장한다 하더라도 최소 6년이면 충분하기에 최소 6년을 주기로 의무적으로 공개입찰 방식을 반드시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의 실천의지가 즉 향후 계약방법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